

도/서/관/탐/방

포항시민들의 지적갈증 해소에 샘물이 되고있는 포은도서관

1 포은도서관을 향해 가는 길

포항시립포은도서관을 방문하기위해 새벽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포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필수코스였던 포항제철이다. 그렇게 철강도시로의 이미지에 갇혀있던 포항에 지난 5월 포은도서관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새삼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었다.

5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가 포항에 도착한 시각은 12시. 길 떠나기 전에는 아무 곳이나 내려도 목적지를 잘 찾아가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솟구치다가 막상 그 지역 터미널에 내리고 나면 상상이 아닌 현실에 부딪쳐 늘 당황하게 된다. 포항 역시도 그랬다.



▲ 포항시립도서관 외관

비
기
도
서
관

Library



▲ 포은도서관 본관 입구
▲ 어린이도서관 입구

터미널에 내리긴 내렸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할지 잠시 막막하던 차에 길에서 도서관을 가는듯이 보이는 가족을 만났다. “저 혹시 포항시립포은도서관이 어디에 있나요?” 물었더니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저희도 도서관 가는 길인데...” 하시면서 활짝 웃으신다. 이렇게 그 가족을 따라 도서관에 잘 도착할 수 있었다.

옛 시청사 건물 3개동을 리모델링한 도서관 건물 외벽에 커다랗게 장식된 상큼한 이미지들이 우리를 반겼다. 딱딱해 보이는 시청사 건물을 따뜻하고 발랄한 느낌으로 바꾸려고 애쓴 것 같았다.

우리는 본관으로 보이는 듯한 건물로 들어섰다. 1층에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일대기와 학문적 중심 사상을 발췌해 게시한 전시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도서관은 잠시 후에 자세히 둘러보기로 하고 우선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찾았더니 서숙희 관리담당과 송영희 사서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두 분 다 포은도서관 개관 준비부터 해오셨던터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2 포항시 공공도서관들

포항시 인구는 현재 약 51만명 정도이다. 이런 포항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1987년 개관한 영암도서관(남구 대도동 소재)과 1999년 개관한 오천도서관이 전부였다. 그후 2007년 1월에 남구 대잠동에 도서관정보센터가 개관을 했고, 2006년 10월 옛 시청사 건물(북구 덕수동 소재)을 도서관으로 활용키로 결정하고 우선 올 3월 2일 민원실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올 5월 7일 본관 건물을 포항시립포은도서관으로 개관했다. 포은도서관은 포항시의 대표적인 지식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포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는 옛 시청사를 리모델링했다는 점과 시민공모를 통해 포항출신인 포은 정몽주 선생의 호를 도서관 이름으로 선택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항은 2007년 상반기에 공공도서관 2곳이 잇달아 개관하면서 이제 총 4곳의 공공도서관이 있는 도시가 되었다. 짧은 시간에 공공도서관이 연달아 개관



▲ 포항시가지 지도



하고 옛 시청사를 리모델링해 도서관으로 개관하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노고가 있었겠지만 특히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 휴일에도 도서관에 꼭 들러 도서관 일들을 꼼꼼히 챙기는 박승호 포항시장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으며 음지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사서들과 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갖기 시작한 시민들의 힘이 한 데 모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포은도서관은 바로 건너편에는 초등학교가 2곳, 300m~500m 사이에 중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일대에 고등학교가 많으며, 길가에 위치해 포항 시내를 통과하는 버스 대부분이 도서관을 거쳐 가기 때문에 오가며 들리기 편한 최상의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

3 포은도서관 개요 및 운영현황

송영희 사서가 직접 친절한 설명으로 도서관 곳곳을 안내해 주었다.

포은도서관은 전체부지 7,590m²(연건평 4,448m²)로 총 3개동(본관, 어린이관,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은 지상 3층, 어린이관은 지상 2층 규모이며 총 4만 2천권(포은도서관 2만6천권, 어린이도서관 1만 6천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별관은 현재 열람실로만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 어린이도서관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본관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층 로비에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일대기 등을 게시한 전시공간과 종합자료실과 전자정보실, 정기간행물실이 있다. 종합자료실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무인반납 대출기를 이용해 원하는 책을 대출하고 있었다. 전자정보실 한쪽 코너에는 '10분 검색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잠깐씩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출대 위에 놓여있는 아기자기한 잡지신청함도 이색적이었다. 2층에는 사무실과 어르신방, 소규모 문화강좌실, 다목적실, 강당 등이 있다. 특히 어르신방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시설과 분위기가 무척 쾌적했다. 3층에는 자유열람실과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이 있다. 지금까지 방문해 본 도서관 중 도서관 내에 이용자를 위한 체력단련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다. 마침 한 이용자가 책을 읽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도서관 곳곳의 안내판과 인테리어 등도 이용자들을 많이 배려하면서도 산뜻하고 깔끔해 보였다.



▲ 인터넷을 즐기고 있는 어르신들



▲ 본관 1층 정몽주 선생의 전시공간



◀ 송영희 사서



▲ 종합자료실
▲ 체력단련실



▲ 사서와 상담중인 이용자
▲ 어린이도서관 실내전경

어린이도서관은 옛 민원실을 리모델링했는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한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을 했다. 멀티동화코너, 유아방,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엄마와 함께 책읽기와 동요부르기, 동화구연, 빛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있어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도 그날은 이용자가 적은편이라고 하는데도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었다.

직원인 총 12명, 이중 사서는 모두 4명이며 서숙희 관리담당(전 영암도서관장) 및 송영희 사서(전 영암도서관 사서)를 비롯해 모두 기존에 유일한 공공도서관이었던 영암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포은도서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도서관은 RFID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각종 다양한 문화강좌와 주말에는 가족영화도 상영하고 있어 평일에는 이용자가 1,000명, 대출은 1,500권 정도, 주말과 휴일에는 2,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고 있어 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본관과 어린이관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며 휴관일은 월요일이며 1인당 대출권수는 총 3권, 비도서 2점 이내, 대출기간은 10일이다.

4 특별 프로그램과 범시민도서모으기 운동

■ 다자녀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대출서비스

포은도서관에서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다자녀 가족은 셋째자녀(다둥이)부터는 3권에서 6권으로 대출도서수를 늘려준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택배 서비스 등 시민에게 찾아가는 열린 도서관 이미지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왕복 택배료는 도서관에서 부담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다.

■ 자원봉사자 교육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기본적인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자원봉사활동가로 육성하고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 개강해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필수와 선택과정을

이 있으며 필수과정인 도서관 운영부서는 시립도서관 사서들이 직접 강사로 활동하고, 선택과목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이수자는 도서관 현장에서 전문적인 봉사활동으로 인력부족을 보완해주고 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시 운영관리자로 채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한다.

■ **빛공연, 패널시어터, 영어로 동화를 읽어오 등 이색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도서관)**

빛그림이야기는 화면에 빛을 쏘아 무대에서 출연자들이 영상물(구연동화)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독특한 방식으로 상영하는 이색 영상물로 많은 어린이들이 호기심과 창작력에 자극이 되며 폭넓고 다양한 문화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고 있다.

패널시어터는 P-Paper를 용에 붙여가며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새로운 동화구연과 마술적인 기법의 공연으로 유아 및 유치원 대상으로 어린이 도서관에서 월 2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어로 동화를 읽어오는 유치원생 및 저학년 대상으로 월2회 실시하고 있는 영어 동화읽기 프로그램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포은도서관에서는 현재 모든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에 소개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유아 대상은 1일도서관 체험교실,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운 동요부르기, 사서도우미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동화구연 등이, 어린이 대상은 방과후 독서논술, 저학년 한자교실, 발표력과 리더십키우기, 칼라&점토클레이, 마인드맵, 독서회 등을, 일반인 대상은 글쓰기 및 독서논술지도, 외국어회화, 주부동화구연, 독서회 등을, 어르신들 대상은 우리글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서도우미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동화구연과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되는 우리글 교실은 참여율도 매우 높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한다.

이번 9월 독서의 달에는 다독자 시상, 책속의 보물찾기, 독서 관련 특강, 책 만들기 체험, 가두 캠페인 실시, 어린이도서관 현장학습, 책읽기 권장 릴레이, 북카페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원 북 원 포항'의 일환으로 2007년 원 북(마당을 나온 암탉) 작가인 황선미 작가를 초청해 문학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원 북 원 포항' 선정도서는 문인협회,



▲ 자원봉사자 교육



▲ 패널시어터 행사



▲ 일일사서로 나선 박승호 포항시장

학계, 문화예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가 결정했다.

■ 범시민도서모으기 운동

포은도서관은 개관과 더불어 포항시에서는 처음으로 범시민도서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현재까지 1만 3천권의 도서와 4천 2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았다. 이 같은 높은 참여는 선진 도서관문화 구축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애향심에 힘입은 결과로 작년부터 추진된 '원 북 원 포항' 과 함께 도서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책 읽는 도시 분위기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범시민도서모으기 운동 전개

5 향후 운영 계획

향후 포은도서관은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만큼 현재 어린이도서관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설비 1억 5천만원(추경확보), 약 198m²(60평)정도의 규모로 올해 하반기에 멀티미디어 체험시설, 영상학습실, 휴게실 등을 별관(구 의회동) 1층에 확충할 계획이며 올 연말이면 포화가 예상되는 종합자료실 확충도 계획 중이다.

이 외에도 자체예산을 확보해 정문 사인물 제작, 자원봉사자 교육 및 도서관 직원의 재교육 활성화, 현재 모집 중인 주부독서회 활성화, 도서관 이미지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발굴·운영,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 나오면서

서두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포항시 하면 늘 따라다니는 이미지는 철강도시지만 포항의 공공도서관 실정은 이런 명성이 무색할 만큼 도서관 상황은 초라했다. 그동안 포항의 공공도서관은 건립되지 오래된 영암도서관과 오천도서관 뿐으로 시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줄 도서관 기반이 거의 없었다.

▼ 책을 정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이런 현실에 지역 사서들과 시민들은 포항의 도서관문화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차에 마침 도서관에 관심이 많던 박승호 포항시장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공공도서관 확충이 가시화되었다. 그 결과 2007년 하반기 지금 포항에는 공공도서관이 총 4개관이 된 것이다.

특히 4개관 중 포항의 중심에 있는 옛 시청사를 리모델링한 포은도서관의 개관은 포항시민들의 지적갈증을 해소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신영수 관장, 서숙희 관리담당, 송영희 사서 등을 비롯한 직원들은 포은도서관 문을 연 후 포항시민들의 높은 이용도를 보면서 그들에게 큰 선물을 한 것 같으며 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뛰었던 일이 생애에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다.

사서가 꼼꼼하게 도서관 홈페이지에 FAQ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달의 추천도서를 직접 올려놓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문화 활동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도서관의 많은 일에 사서가 중심이 되고 있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이렇게 열정적인 직원들이 모여있는 도서관이라면 현재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앞으로는 더욱 시민만족도가 높은 최상의 공공도서관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포항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진정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해 포항중앙도서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예산확보 등의 난항이 예상되지만 옛 시청사를 포은도서관으로 만들었듯이 꼭 포항중앙도서관을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 좋은 결실을 기대해 본다. (☺)

(글 : 심효정, 사진 : 심효정, 최인경)



▲ RFID시스템을 이용해 책을 대출하고 있는 어린이 이용자

▼ 서가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이용자

